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신임회장

최 삼 규 이화공영(주) 대표이사

"대·중소, 경향간 상생 발전을 리드하는 향도 역할하고 싶어"

"개인적으로는중책을맡게되어커다란영광이지만어려움에처한건설업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무거운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만큼지난50여 년 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계를위한마지막봉사의기회로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함으로써 화합과 나눔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6월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의 새로운수장으로취임한최삼규회장은서울시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업체들로 이루어진 데 걸맞게 건설 정책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대 · 중소, 지역간 상생 균형 발전을 리드하는 향도가 되도록 진력하겠다고말했다. 그는특히최저가낙찰제도와대 · 중소업체간의양극화문제를 당면과제로꼽았다.

먼저, 최저가낙찰제도와 관련하여 최삼규회장은이제도로인해기업의자금사정 악화, 부실 시공, 심지어 업체 도산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능력 제고 등을 통한 비용 감소, 공기단축등당초도입취지와는달리덤핑수주를초래함으로써건설업체들을사지로내몰고있다는것이다." 예산조기집행과4대강살리기사업등으로각종 공사발주는늘고 있지만 최저가 공사 확대로 업계의 어려움은 쉽사리 해결되지않고있습니다. 시행상 많은부작용이있는최저가낙찰제도를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대 · 중소 업체의 수주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최삼규회장의목소리는 최저가낙찰제도의폐해를말할때보다더높아졌다. 회원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업체의 생존이걸려있기때문이다.

최삼규 회장은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라할수있는적격심사공사물량이크게줄어들고있는점을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적격심사 공사 물량은 2003년 9조 7,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5조 6,000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4조 1,000억원 가량이 감소하였다." 예산절감정책에따라적격심사 공사가 최저가 공사 등으로 바뀌면서 저가 낙찰 및 양극화 심화라는 폐해가 가중되고있습니다. 민간건설경기의침체로대형업체마저공공공사수주에주력하면서 중소업체들이점차설자리를잃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

서울업체라는데따른역차별도시급히 풀어야할현안이다. 최삼규회장은서울의 경우대기업이밀집되어있는지역적여건으로 인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가점제 등에서 회원사들이 서울 이외의 지역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토로했다. 4대강살리기사업에서도서울의중소업체는 소외될가능성이높아상대적박탈감이높아지고있다고전언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러한 현안들을 타개하고자현재업계차원의 대 · 중소상생협력협의회를구성하여정책방향등을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합의점을도출함으로써대 · 중소, 서울 · 지방건설업체들이상생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이마련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

한편, 최삼규 회장은 사회 공헌 사업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서부지역협의회 회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수석부회장등을맡고 있으며, 20년넘게범죄예방활동에도참여하고있다. 특히, 모교인용산고에대한장학사업과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의 생활비 및 학자금지원등국가의미래라할수있는청소년육성사업에힘을쏟고있다. 기업이익의사회환원을몸소실천하고있는것이다. "기업이익으로사회활동도하고남을위해 좋은일도할수있는것을더없는축복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CJ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